

토론요지

논전 2. 농업·농촌의 서비스산업화 - 6차 산업

사회: 류왕보(베틀카 대표)

토/론/요/지

논전 2. 농업·농촌의 서비스산업화-6차 산업

6차산업화에 대해서는 오현석 대표(지역아카데미)와 정도채 부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각각 전면수정론과 유지개선론의 입장에서 발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현석 대표는 EU와 일본이 가족노동력에 기초한 개별경영체(농가)를 중심으로 다각화를 이루고, 그런 농가들의 수평적, 수직적 결합을 통해 지역의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책의 목표도 분명히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반면에 정도채 부연구위원은 6차산업화 정책이 짧은 기간 동안에 경영체수의 증가, 시행법령 및 중간지원조직을 비롯한 제도적 시스템적 완비, 농업인 전반에 대한 인식 확대와 추진경영체의 매출 및 고용 확대, 농촌관광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현장에서 진행되어 온 다양한 성공사례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앞으로 정책목표 면에서 공동체 문화의 보존을 비롯하여 비경제적, 비가시적 가치들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운영상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현장 투표에서는 80% 이상이 전면수정론쪽에 찬성하였습니다. 발제 내용에 더하여 4년의 실행 이후 '중간 궤도수정(mid-course correction)'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에 더욱 힘이 실린 것으로 생각됩니다.